

예식업 종사자의 전통혼례에 대한 의식과 태도 연구

The Study on Consciousness and Attitude about Wedding Ceremony of Wedding Vender

김인옥*

건양대학교 예식산업학과

InOk Kim

Dept. of Advanced Life Event Science, Ko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based on Sa rye pyun ram(四禮便覽) by Lee Jae which are Chosun Dynasty book about the rules in a wedding ceremony. And the research examine into the understand how to the procedure, the true meanings about korea traditional wedding and general opinion of wedding custom. The instrument is the questionnaires, which is analyzed finally through data processing with 129 of wedding vendors. The data analyze by making use of SPSS program were frequency analysis, ANOVA, χ^2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he summary of a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wedding awareness of wedding vendors about Eou hon(議婚) is on a high level but Nab chae(納采) is low. Second, wedding vendors are knowing with "Hon suh ji(letter), four season cloth, blue-red satin, shell goods" in a Nab peau(納幣) and with "jujube, beef, chicken, Gu jel pan(accompaniment to a drink), alcohol in a Peau back(幣帛). Third, wedding vendors are answered that acceded to "Peau back" and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but needed no "gifts & cloths for wedding". Forth, the understanding of wedding procedure (婚禮節次) is on a low, especially Bon ray(本禮).

Key Words : wedding vender , wedding awareness, wedding custom, wedding composition

I. 서론

한국 전통 혼례 문화의 절차상 흐름을 보면 선례, 본례, 후례로 구성되어 있다. 본례가 혼례의 중심이 되며 오늘날의 결혼식에 해당된다. 사주, 혼수, 예단, 함 등 결혼식 전 혼인관행이 선례이고, 결혼식 후 폐백, 신혼여행 등은 후례에 포함된다. 의혼, 납채, 납폐, 친영 등 문헌의 절차와 실제 관행에서 이루어진 혼례실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선례, 본례, 후례 라는 순차적 구조의 틀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 혼례 방식은 1930년대 서양식 결혼(장철수, 1995)이 등장하면서 예물을 보내는 납폐와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현구고례(見舅姑禮)만이 각각 함

(函)과 폐백(幣帛)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식 결혼식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와 같이 예식이 끝나자마자 예식장내 폐백실에서 시부모께 폐백을 드리는 형태는 예식장 산업이 시작된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 된 것으로 보인다.(김인옥, 2006) 오늘날 서양식 혼례가 일반화 되면서 예식관련업종은 드레스 샵을 비롯하여 웨딩스튜디오, 웨딩메이크업, 슈얼리샵 등 다양한 형태로 분업화 되어 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웨딩 벤딩(Wedding Vending)이 예식장으로부터 독립하여 분리되면서 예식장은 단지 예식을 위한 공간 및 피로연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단적으로 예식장의 일괄구매 강요가 2001년 12월 공정거래 위원회의 표준약관 시행으로 전면 금지되면서 예식장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빚어진

* Corresponding author: InOk Kim
Tel: 041) 730-5561
E-mail: inokggum@konyang.ac.kr

결과라 볼 수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식장측은 예식홀을 신랑신부들에게 대여해 줌에 있어 신부드레스, 식당, 사진, 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 서비스 물품의 이용을 소비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예식홀의 드레스나 사진, 메이크업 등 소위 패키지(package) 상품들은 신랑신부 당사자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패키지 상품의 분리는 예식장이 스스로 구조조정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2002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 전문 예식장은 1,150여 개이며, 종사자수는 8,280명으로 집계되었다. 2005년에 예식장 수는 999개로 감소한 반면, 종사자수는 10,403명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2, 2005) 웨딩산업구조의 양상이 예식장업에서 웨딩 벤딩으로 옮겨가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웨딩업의 분업화와 전문화로 웨딩컨설팅업이 등장하면서 한국 혼례문화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프리랜서의 개념인 웨딩매니저 혹은 웨딩플래너들의 서비스가 기업화되어 웨딩 컨설팅업으로 재편성 되면서 웨딩산업시장에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웨딩플래너협회(2003)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웨딩컨설팅회사는 서울지역에만 5백여 곳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전국적으로는 8백여 곳이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최근 들어 예식장외에 호텔, 공공기관의 강당이나 구민회관 등 공용시설에서 다양한 형태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세대 젊은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는 자신만의 맞춤형 결혼을 원하고 결혼전반에 대한 상담과 진행을 맡아 줄 컨설턴트들을 찾는다. 과거 부모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결혼 준비를 해 오던 일을 오늘날에는 예식전문가인 웨딩플래너 혹은 웨딩매니저들이 이를 대신해 관리해 주고 있다. 실제로 예비신부 전체 중 66% 즉, 10명의 신부 중 7명이 웨딩컨설팅에 적극적인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한국웨딩플래너협회, 2003)

한편, 일부 연예인들이 전통혼례형식으로 혼례를 하는 경우가 매체에 자주 노출되면서 전통혼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서양식 결혼식이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사주와 함, 폐백, 혼수, 예단 등은 전통 혼례풍습을 지속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전통혼례는 혼례과정 중에 행위에 대한 의미부여가 매우 큰 의례이다.

과거 혼례과정 중의 중요한 덕목들은 사라지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왜곡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 현대사회 의례문화 중 병폐 현상으로 사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영역이 함 값 요구, 혼수와 예단문제 등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 이혼사유 등의 원인제공 요인이 되고 있다. 2006년 L연예인 부부가 혼수문

제로 결혼 한지 한달도 채 안되어 파경 한 사건이 있었다.(<http://www.donga.com>, 2006. 12. 28) 신혼집 장만에 서부터 양가 간 갈등이 시작되었고 혼수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이혼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 자주 등장하는 혼수와 예단 등이 결혼당사자간 대립이 아닌 양가 간 부모들의 개입이 연계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혼수나 예단, 함, 폐백 등 현존하고 있는 고유한 혼례풍습이 사라져야 할 악습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이를 제지하며 혼례문화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 줘야 하는 사람이 신랑신부와 그 부모를 상대로 상담을 하고 예식업을 하고 있는 현장실무자들이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예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의식이나 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회적 지표는 만들어져야 한다. 연구 자료는 앞으로 산업체 실무자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의 수위를 정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통혼례풍습이 현대 웨딩산업시장의 한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식업 관련 종사자들의 전통혼례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앞으로 한국 혼례문화의 향방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예식업 종사자란 예식장 근무자를 비롯하여 웨딩업체에서 상담역할을 하는 웨딩매니저와 웨딩컨설팅사의 웨딩 플래너를 포함하고 있다. 그간 혼례에 대한 일반인과 대학생들에 대한 의식조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현장실무 담당자인 예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도 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혼례문화와 웨딩산업시장을 책임질 예식업 종사자의 전통혼례 의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혼례문화

조선조 예서인 [四禮便覽](이재, 1844)에 명시된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등은 중국의 [朱子家禮]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의혼, 납채, 납폐는 혼례식 전 행사이고 혼례식과 그 이후 과정은 친영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 전통혼례는 시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라 행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서를 통해 제시된 문헌의 절차와 실제 관행에서 행해지고 있는 혼례행례와는 서로 다르다. 문헌과 관행의 혼례에 대해 언급한 선행연구(장철수 1991, 황경애 1994, 김득중 2007)를 기초로 한국의 혼례과정을 구성해보면, 선례(先禮), 본례(本禮), 후례(後禮)

로 구분할 수 있다. 혼인예식에 해당되는 본례(本禮)를 중심으로 한국의 혼례문화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1) 선례(先禮)

선례는 두 남녀가 혼인식을 올리기 전까지의 혼례절차를 말하며, 의혼(혼담), 납채(사주, 택일), 납폐(함)의 예가 여기에 속한다. 남녀가 혼인할 연령이 되면 중매인을 통해 혼담이 오고가게 되어 혼인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혼이라 한다. 혼인은 대개 신랑 신부 당사자간 결합으로 보기 보다는 양가 집안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혼주의 의사와 가문의 개입 범위가 혼인 결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납채(納采)는 약혼에 관한 의례로 신랑 측에서 청혼하고 신부 측에서 허혼하여 주혼자끼리 합의하여 정혼하게 되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사주와 혼인을 청하는 글을 보내는 것을 납채라 한다. 사주(四柱)는 사성(四星), 주단(柱單), 단자(單子)라고도 하는데, 신랑의 生年, 月, 日, 時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간지(簡紙)에 적어 봉투에 넣고 곁에 '四柱' 또는 '四星' 두 자를 쓴 다음 후면에는 '근봉(謹封)' 이라고 쓴다. 이것을 붉은 보자기에 싸서 신부 집에 보내는 것이다. (이능화, 1990) 사주를 받는 것은 약혼을 하는 것이므로 사주를 받은 후에 혼인을 거절하면 파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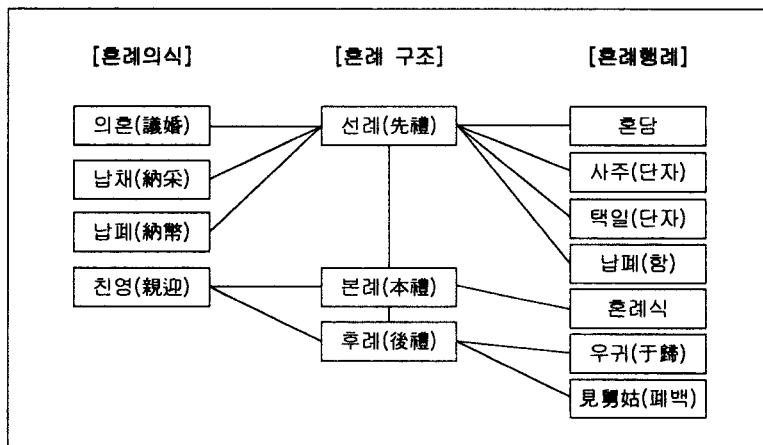
신부 집에서는 사주가 도착하면 신부의 부모가 대개는 마루에 상을 놓고 받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상 위에 정화수를 놓기도 한다.(장철수, 1992) 사주를 받은 신부 집에서 혼인 날짜를 택일하여 신랑 집에 보내는 것을 연길이라 한다. 예서에서는 연길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실제 관행에서는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이다. 허혼(許婚)의 표시이자 혼인날짜 통보의 의미에서 혼인날을 적은 연길을 봉투에 넣은 후 청홍색 겹보자기로 싰다.(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2000)

납폐(納幣)는 신랑 측 혼주가 혼인 허락에 대한 감사의 예로서 신부 측 혼주에게 예물과 정중한 글월을 함(函)에 넣어 보내는 것을 말한다. 함속에는 청홍채단과 혼서지를 넣는다. 청색채단은 붉은 종이에 사서, 청색명주실로 경사 동심결(慶事 同心結)을 맺어 올려놓고, 홍색비단은 청색 종이에 사서, 홍색 명주실로 경사 동심결을 맺어 올려놓는다. (이길표, 1982) 그리고 주머니에 씨가 있는 목화 몇 송이와 콩, 팥 몇 낱알을 넣어 주머니 끈을 맨다. 목화는 목화처럼 살림이 퍼지라는 의미이고, 콩은 아들, 팥은 딸을 상징하였다. 함이 아무리 커도 혼서지와 옷감 두 벌만 넣는다. 예물은 준비해 두었다가 색시가 시집에 온 사흘 되던 날 준다. 함을 혼인 전 날 함진아비에 지우고, 어두워진 다음에 신부 집에 보냈다. (이규숙, 1997)

2) 본례(本禮)

본례는 친영(親迎)이후에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맞아오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혼례의식 가장 많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혼례식은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를 행하는 것으로 사람이 평생을 사는데 있어서 가장 큰 의례절차라는 뜻에서 대례(大禮)라고도 한다.

기러기아비가 홍색 겹보자기로 싰 기러기를 안고 신랑과 신부 집에 도착하면서 전안례(奠雁禮)가 행해진다.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2000) 신랑이 목안(木雁)을 받들고 들어가서 전안상(奠雁床) 위에 목안을 놓고 재배한다. 신랑이 절을 하는 사이에 대부분 신부의 어머니가 목안을 치마로 받아들고 쌀독에 넣거나 시루 속에 감추거나 그대로 안방에 던지기도 하는데 기러기 주둥이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에 따라 자손의 성별을 점치기로 한다. 목안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신부 어머니이나 지방에 따라서는 혼주



[그림 1] 한국 혼례문화의 구조적 틀

(경남), 신부(전복)가 받기도 한다.(박혜인, 1981)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예로 전안례를 마친 신랑이 대례청에 올라가 신랑은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마주 보고 선다. 먼저 수모의 도움으로 신부가 재배(再拜)하면 신랑은 답으로 일배(一拜)한다. 다시 신부가 재배하면 신랑은 답배(答拜)한다. 이러한 禮를 교배례(交拜禮)라 한다.

교배례가 끝나면 수모가 상에 있는 청홍실을 감은 표주박잔에 술을 따라 신부에게 준다. 신부는 입만 대었다가 수모가 다시 받아서 신랑의 대반(對盤), 즉 신랑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준다. 대반이 받은 술잔을 신랑에게 주면 신랑은 마신다. 대반이 답례로 다른 표주박잔에 술을 따라 신랑에게 주면 신랑은 입을 대었다가 대반을 통해 수모에게 준다. 이러한 절차를 합근례(合醮禮)라 한다.(장철수, 1992)

초례상은 일반적으로 촛대 한 쌍으로 불을 밝히고, 송죽이나 사철나무를 꽂은 꽃병 한 쌍, 백미 두 그릇, 밤, 대추, 닭 암수 한 쌍, 쪽 바가지 두 개와 청실홍실을 꼬아 걸쳐놓고, 신랑 신부가 설 자리 앞에는 술잔을 차려 놓은 후 세수 대야에 물을 담아놓아 손을 닦도록 준비하는데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송죽은 여자의 절개를 의미하고, 닭 울음은 벽사의 힘으로 잡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때를 알려주고, 청실홍실은 남녀의 인연을 상징하는 것들이다.(이차숙, 1993)

교배례와 합근례 후에 예필선언으로 식은 모두 끝난다. 여기서 대례가 신부 집에서 행해진다는 문헌의 내용과 관행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문헌에 나타난 친영(親迎)에서는 전안례 후 신랑 집에서 교배례, 합근례가 행해졌는데, 실제 관행에서는 신부 집에서 모든 대례과정이 행해지고 첫날밤을 신부의 집에서 보냈다.

혼인한 날 저녁에는 신랑 신부가 정복을 하고, 첫날밤을 지낼 신방에 들어간다. 신부의 예복은 신랑이 벗기고, 첫날밤 족두리는 반드시 신랑이 풀어준다. 이때 '신방을 지키다.'하여 방 밖에서 창호지 문구멍을 뚫어 엿보기도 하나 촛불을 끄면 모두 물러간다. 첫날밤을 지낸 이튿날 신랑은 장인, 장모와 처가의 근친에게 인사한다.(장철수, 1992)

3) 후례(後禮)

대표적으로 우귀(于歸)와 현구고례(見舅姑禮)가 후례에 속한다. 혼례를 치르고 처가에서 일정기간 머문 후 신랑이 신부와 같이 본가(本家)로 돌아오는 것을 우귀라 한다. 우귀 전 신부 집에서는 시부모님께 드릴 폐백을 마련하였다. 폐백은 일반적으로 밤, 대추, 육포, 닭을 장만한다. 시아버지께는 대추폐백을, 시어머니께는 고기폐백(片脯)을

드렸다. 이 때 고기폐백에는 청,홍색의 띠를 두른다. (한국 전통생활문화학회, 2000) 폐백으로 대추를 쓰는 것은 대추가 자손을 뜻하기 때문이고, 시아버지가 대추를 던져주는 것은 아들을 낳기를 바란다는 뜻이며, 시어머니에게 드린 폐백을 어루만지는 것은 며느리의 흥취를 돋는다는 뜻이다. 폐백에서 술은 사용하지 않았다. (박혜인, 1981) 현구고례(見舅姑禮)는 혼례식이 끝난 후 신부가 시가에 와서 시부모님과 시댁친척들에게 첫인사를 드리며 시가 가문의 한 사람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이다. 이때 시부모는 돌아가셨어도 폐백이 있지만 시조부모는 살아계신 분에게만 폐백을 드린다. 시조부모가 살아 계실 경우 신부가 시조부모님의 방으로 가서 시부모와 똑같은 예를 드린다. (이규숙, 1987) 이것으로 실제 관행에서 행해지는 혼례절차는 모두 끝나게 된다.

문헌에서 친영은 초례(醮禮), 전안(奠雁), 우귀(于歸), 교배(交拜), 합근(合醮), 현구고(見舅姑), 고사당(告祠堂), 재행(再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관행에서는 전안(奠雁), 교배(交拜), 합근(合醮), 재행(再行), 우귀(于歸), 현구고(見舅姑), 고사당(告祠堂)의 절차로 나누어진다.(장철수, 1992) 문헌에서의 절차는 일방적으로 신랑 집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반면에, 관행에서는 신부 집의 활동이 강조되어 모든 절차가 대등한 관계로 진행되고 있다. 즉, 양가의 참여에 의해 의혼이 이루어지고, 신랑 집에 의해서 납채가 행해지면 신부 집에 의해서 연길(延吉)이 행해진다. 신부 집에 의해서 의양 보기가 행해지면 신랑 집에 의해서 납폐가 행해지고,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예식을 치르면 신부가 신랑 집에 가서 다음 예식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예식업 종사자의 특성

과거 혼례 준비는 당사자나 양가의 어머니들, 가족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웨딩산업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식이 젊은 세대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며 변화하고 있다. 패션과 스타일의 집합체로서 신세대 취향에 맞추어 드레스코드나, 웨딩스타일을 구성해 나아가는데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용 할 수 있는 웨딩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웨딩 전문가는 혼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무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인옥, 2006) 양가 혼인의 의사가 분명해 지면 상견례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혼례 준비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예식장선정, 신혼여행지 선정, 신혼집 장만, 예물과 예단, 혼수 마련 등 혼인날짜에 맞추어 프로세스가 정해진다. 또한 결혼식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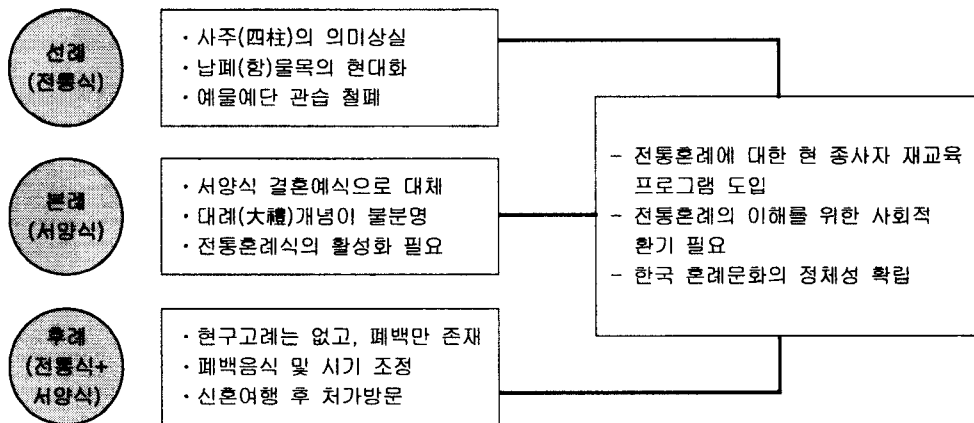
일 날을 위한 웨딩드레스, 사진, 메이크업, 연주자, 축하, 이벤트, 폐백 등 직접 결혼 당사자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수많은 웨딩 상품 정보를 제공하며 결혼 당사자 요구에 맞도록 선별해 주는 일들을 웨딩전문가가 맡아서 해주게 된다. 기존의 전문 예식장에는 예식 상담과 진행을 도와 줄 컨설턴트들이 있지만 이들은 결혼식장 내 근무하는 직원으로 예식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상담 안내 및 예약, 예식 진행 등의 절차를 밟아주는 상담자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일반 예식장 내 예식 상담원인 웨딩컨설턴트(Wedding Consultant)에서 예식 전문가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부터 등장한 웨딩매니저(Wedding Manager)들이다. 이들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이색 직업으로 소개되면서 웨딩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혀 나아가게 된다. 웨딩 매니저는 대부분 프리랜서의 신분으로 활동하며 고객을 상담해 주는 전문 예식장내 상담원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 개념의 개별적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인옥, 2006) 웨딩 매니저들은 대부분 웨딩드레스 업체나 메이크업 뷰티업체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해 왔다는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근무기간 동안 형성된 웨딩시장의 인맥을 활용해 예비 신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주고 스케줄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이들의 주요 업무다. 풍부한 정보를 갖추고 결혼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신세대 취향에 맞는 결혼식 준비를 전반적으로 해 준다.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을 설계하며 비용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이들의 일이기도 하다. 초창기 주로 웨딩드레스숍이나 웨딩 메이크업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 컨설팅업에 가세하면서 웨딩 컨설팅업이 새로운 산업시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결혼 상품의 전반적인 유통구조가 병폐하였던 예식장내 일괄 구매 옵션인 일명 "끼워 팔기"가 전면 금지(공정거래 위원회, 2001) 되면서 웨딩컨설팅업의 활동은 더욱 활

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최근 예식장 간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색적인 이벤트가 결합되는 등 웨딩의 다양한 연출이 시도되고 있다. 축하나 축주, 웨딩 케익 커팅과 샴페인 축배 등 각종 이벤트가 등장하면서 고객의 선호도와 요구를 고려한 예식 순서와 진행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된다. 또한 대다수의 젊은 예비부부들은 예식 전문가들이 총괄적으로 결혼준비와 스케줄관리나 설계를 해 주길 원하고 있다. (김인옥, 2007) 예비부부들을 상대로 결혼 상담과 정보제공, 결혼식 진행과 이벤트 등 예식의 총괄적 기획을 하게 되는 다소 발전적 개념의 전문가를 웨딩플래너(Wedding Planner)라고 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1세기 유망직종 중 하나로 웨딩플래너를 선정했다. (여성가족부, 2004) 웨딩 컨설팅 업체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2003년 한국웨딩플래너 협회를 결성하면서 정보공유와 웨딩 시장 경제의 새로운 유통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 2]는 현대 한국사회 혼례구조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전통혼례문화의 선례, 본례, 후례의 구조가 현대사회에서는 선례는 전통식을 따르고 본례는 서양식을 따르며, 후례는 전통식과 서양식이 공존하는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예식업 종사자들은 전통식조차도 많은 부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편승시켰으며, 그 결과 폐백음식 전문점, 예단, 혼수전문점 등이 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 이해 없이 혼례문화를 산업으로만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예식업 종사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바람직한 혼례문화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미를 더해 줄 것이다.

예식장의 예약상담자, 웨딩상품 판매업체의 웨딩벤더(Wedding Vender)와 웨딩컨설팅업체의 웨딩플래너, 이들이 한국 웨딩산업을 이끄는 예식업 종사자라고 할 수 있



[그림 2] 예식업 종사자의 혼례구조에 대한 문제인식과 과제

다. 본 연구는 그들에 대한 전통혼례 의식과 태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예식업 종사자의 전통 혼례 의식(儀式)수준은 어떠한고,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있는가?
 연구문제2> 예식업 종사자의 혼례행태 태도 수준은 어떠한고,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예식업 종사자의 혼례구조 인지 수준은 어떠한고,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있는가?
 연구문제4> 예식업 종사자의 전통혼례의식과 혼례구조인지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예식업 종사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본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그들의 성별, 연령, 학력, 고향, 종교, 혼인여

부, 현 직급, 현 직무에 대한 만족도, 종사하고 있는 웨딩산업 분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성별은 남자가 27.9%, 여자는 72.1% 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40.3%, 40대 이후가 9.4%로 나타나 대체로 실무자는 30대 까지가 적정 연령인 것으로 파악된다. 학력은 48.8%가 전문대졸이고, 대졸이상이 34.9%, 고졸이하가 16.3%로 나타났다.

고향은 충청도가 30.2%, 서울 22.5%이며 경기도, 경상도가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51.9%를 차지하여 과반수이상인 종교가 없었다. 혼인여부는 기혼이 24.8%, 미혼이 75.2%로 종사자의 대부분이 미혼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현 직급은 직원이 64.3%로 가장 많았고, 실무관리자가 31.0%, 경영자가 4.7%였다.

현 직무에 대한 만족도 여부를 질문한 결과 47.3%가 “다소 만족”하고 있고, “그저 그렇다”가 21.7%, “매우만족”은 17.8% 로 86.0% 가 현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 답변을 하고 있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웨딩산업 분야는 웨딩스튜디오 종사자는 32.6%, 웨딩컨설팅사는 27.0%, 웨딩드레스 숍 14.6%, 웨딩 홀 13.1% 등으로 나타났다. 이 질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129)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자	36(27.9)	종교	개신교	19(14.7)
	여자	93(72.1)		천주교	12(9.3)
	계	129(100)		불교	24(18.6)
연령	20대	65(50.4)		무교	67(51.9)
	30대	52(40.3)		기타	7(5.4)
	40대	9(7.0)		계	129(100)
	50대	2(1.6)	혼인여부	기혼	32(24.8)
	60대 이상	1(0.8)		미혼	97(75.2)
	계	129(100)		계	129(100)
학력	고졸이하	21(16.3)	현 직급	경영자	6(4.7)
	전문대졸	63(48.8)		관리자	40(31.0)
	대졸이상	45(34.9)		직원	83(64.3)
계	129(100)	계	129(100)		
고향	서울	29(22.5)	직무 만족도	매우 불만족	4(3.1)
	경기	21(16.3)		다소 불만족	13(10.1)
	충청	39(30.2)		그저 그렇다	28(21.7)
	경상	21(16.3)		다소 만족	61(47.3)
	전라	10(7.8)		매우 만족	23(17.8)
	강원	6(4.7)	계	129(100)	
	제주	1(0.8)	종사하고 있는 웨딩산업 (중복응답)	웨딩홀	18(13.1)
	기타	2(1.6)		웨딩스튜디오	42(32.6)
	계	129(100)		웨딩드레스샵	20(14.6)
				웨딩컨설팅사	37(27.0)
		웨딩헤어샵		6(4.4)	
		혼수용품업		5(3.6)	
		전통혼례식장		3(2.2)	
		웨딩뷔페/음식		6(4.4)	
		기타	9(6.5)		
		계	137(100)		

문은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웨딩 벤딩은 이른바 패키지(package) 혹은 토탈(total)로 운영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그 밖에 웨딩 헤어샵, 혼수용품 업, 전통혼례식장, 웨딩 뷔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수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플라워 샵, 주얼리 샵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조사도구 및 척도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된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는 문항(10문항)과 전통혼례의식(14문항), 혼례행례 태도(10문항), 혼례구조 인지(13문항)에 대한 의식 및 수준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전통혼례의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도구를 작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중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혼례의식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혼례행례 태도는 각 항목별 빈도 분석하여 측정하였다. 혼례구조 인지는 5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중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혼례구조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1) 전통혼례의식(傳統婚禮意識)

혼례 의식은 문헌에 나타난 규범적 내용을 다룬 것으로서 전통혼례에 대한 이해와 의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예식업 종사자의 전통혼례에 대한 문항은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명시되어 있는 바를 토대로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의혼 내용은 “혼인 시 양가가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등 4문항, 납채는 “사주 단자는 정혼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서식을 제대로 갖추어 보내야 한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납폐는 “함을 준비할 때는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 등 3문항이며, 친영은 “혼인 절차에서 폐백은 어른들께 드리는 예로서 반드시 행해야 한다.” 등 4문항으로 총 14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Cronbach α .65 였다.

2) 혼례행례태도(婚禮行禮態度)

생활사 측면에서 의식주 등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혼인 행례에 대한 태도는 선행연구(이선영 1993, 이길표·주영애 1994, 이지영 1998)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다. 함, 예단, 폐백시기, 신랑관복, 신부예복, 폐백의상, 신혼여행, 각

혼인행례의 지속여부 등에 대하여 개별 문항을 구성하여 총 10문항이며 빈도 측정하였다.

3) 혼례구조인지(婚禮構造認知)

혼례구조는 우리나라 혼례문화의 전반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이해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관련된 문헌(장철수1991, 황경애1994, 김득중 2007)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례(4문항), 본례(4문항), 후례(5문항) 등으로 재구성하였다. 선례의 내용은 혼례식 전까지의 혼례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혼인 전 신랑의 사주단자가 신부 집으로 보내져야 한다.”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례는 “혼례식은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지내는 것이 좋다”등으로 혼인 예식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후례는 혼례 후 우귀에 해당되는 신혼여행과 폐백에 관한 내용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먼저 신부의 친정으로 가서 묵는 것이 좋다.”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Cronbach α .78 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에 앞서 예식업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부적절한 문항은 수정, 보완을 하였다. 조사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설문대상은 웨딩홀, 드레스샵, 스튜디오, 컨설팅사 등 예식업 경영자 및 종사자로 서울과 대전, 수원, 충주, 춘천, 속초 등으로 하였다. 예식업은 대부분 가족 사업으로 운영되는 예가 많고, 한 사업체에 소수 인원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표본추출의 범위는 크나 표본 집단 수는 많지 않다. 본 조사에는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135부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29부가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조사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전통혼례의식

문헌에 제시된 혼례 규범과 내용을 토대로 예식업 종사자의 혼례의식을 살펴본 결과(<표 2 참조>), 전체의식은 중위수준(M=3.42)을 상회하여 혼례의식이 높았다. 양가

혼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의혼에 대한 의식수준은 높았으나(M= 3.86), 사주단지 전달 등 납채에 대한 의식은(M= 2.98)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최근 사주단자는 예단, 한복 등 혼수품 관련업체에서 대신 준비해 주는 예가 많고, 사주 전달이 약혼식 절차 중 단순한 의례 행위의 일부로 포함되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혼수관련 종사자 외 대부분 예식업 종사자는 사주(四柱) 준비 과정에서 개입 여부는 극히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사주단자의 본질적 의미는 많이 상실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예식업 종사자의 전통혼례의식 (n=129)

전통혼례의식	평균(M)	표준편차 (SD)
의혼	3.86	.584
납채	2.98	.729
납폐	3.27	.823
친영	3.23	.611
전체	3.42	.434

한편, 예식업 종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중 전

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으나, 연령, 학력, 고향, 종교 등 하위영역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식업 종사자의 연령은 납채 의식에서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여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사주단자에 대한 의미를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력에서는 친영(親迎)의식에서 유의한 차이(P<.05)를 보여, 학력이 낮을수록 친영에 대한 의식수준은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출신고향과 종교에 따라서도 납채 의식은 각각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예식업 종사자들의 출신이 제주도, 경기, 충청권 출신인 경우 납채 의식은 높게 나타난 반면, 전라, 강원, 서울, 경상도 순으로 납채 의식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종교별로는 개신교인 경우 납채 대한 의식이 가장 낮았고, 기타를 제외한 천주교 신자인 경우 납채 의식 수준은 높게 나타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혼례의식을 조사한 이지영(1998)의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의 혼인여부, 직급이나 직무만족도는 혼례의식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인구 통계적 배경 변인에 따른 혼례의식의 차이

(n=129)

구분	의혼	납채	납폐	친영	전체	
성별	남	3.69	2.95	3.23	3.12	3.30
	여	3.92	2.96	3.27	3.26	3.46
	t-값	-1.899	-0.707	-0.243	-1.168	-1.738
연령	20대	3.86	3.12	3.31	3.31	3.49
	30대	3.83	2.78	3.11	3.12	3.30
	40대	3.92	2.94	3.63	3.50	3.56
	50대	3.50	4.00	3.62	3.50	3.56
	60대이상	4.50	3.33	3.25	3.25	4.00
F-값	0.548	2.695*	2.346	1.258	2.137	
학력	고졸이하	3.83	3.10	3.60	3.59	3.60
	전문대졸	3.77	2.88	3.16	3.28	3.38
	대졸이상	4.02	3.04	3.33	3.08	3.45
	F-값	2.199	0.864	1.686	3.858*	1.395
혼인여부	기혼	3.80	2.88	2.23	3.31	3.40
	미혼	3.87	3.01	3.28	3.21	3.43
	t-값	-0.571	-0.933	-0.288	0.846	-0.328
고향	서울	3.70	2.85	3.21	3.15	3.33
	경기	3.77	3.21	3.44	3.20	3.46
	충청	3.96	3.20	3.27	3.41	3.55
	경상	3.92	2.87	3.40	3.23	3.45
	전라	3.93	2.40	2.87	3.05	3.19
	강원	3.96	2.78	3.17	2.96	3.29
	제주	3.00	3.50	3.67	3.75	3.42
	기타	4.13	2.50	2.83	3.00	3.29
	F-값	0.982	2.319*	0.688	0.982	1.280

<표 3> 계속

(n=129)

구분		의혼	납채	납폐	친영	전체
종교	개신교	3.90	2.72	2.98	3.21	3.33
	천주교	3.83	3.28	3.81	3.46	3.64
	불교	4.10	3.20	3.35	3.26	3.56
	우교	3.76	2.87	3.22	3.18	3.35
	기타	3.89	3.43	3.28	3.32	3.56
	F-값	1.628	2.839*	2.029	0.580	2.418
직급	경영자	4.25	2.89	3.56	3.17	3.60
	관리자	3.90	2.79	3.13	3.07	3.33
	직원	3.81	3.08	3.31	3.32	3.46
	F-값	0.326	0.871	0.083	0.715	0.107
직업만족도	매우불만족	3.58	3.11	3.56	4.00	3.60
	다소불만족	3.48	2.92	3.22	3.13	3.24
	그저그렇다	3.83	2.97	3.30	3.04	3.35
	다소만족	3.87	3.03	3.26	3.28	3.46
	매우만족	4.05	2.83	3.30	3.29	3.50
	F-값	2.145	0.361	0.115	2.157	1.074

* P<.05 ** P<.01 *** P<.001

2. 혼례행례 태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혼례 행례에 대한 예식업 종사자의 태도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예식업 종사자들의 48.1%가 납폐물목으로 “혼서지, 4계절 옷감, 청홍양단, 폐물”이라고 응답하였고, 전통적 관습인 “혼서지, 청홍양단, 곡식(콩,팥)”에 응답한 비율은 20.9%로 나타났다. 납폐물목은 함에 들어가는 내용물로 과거에는 채단(청홍치맛감)과 곡식이 납폐서(혼서지)와 함께 신부 집으로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물론 세부적 물목은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예물이나 신부화장품, 신부예복 등은 납폐물목의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예단의 범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부모, 신랑형제, 시댁친척”이 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7.1%가 “시부모, 신랑형제”까지의 범위로 응답하였다. 예식업 종사자의 약 60%가 시부모를 비롯하여 신랑 측 형제와 친척으로까지 예단의 범위를 정하고 있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혼인을 앞 둔 예비부부들에게 혼수마련과 예단은 양가 간 갈등과 불화 등 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때에 따라서는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혼인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예단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고 본다.

폐백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84.5%가 “식이 끝난 후 예식장”에서 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우리사회 예식장 내 폐백이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폐

백은 혼례식을 치른 후 처가에서 합방례를 마치고 본가로 돌아가 신부가 시어른을 처음 뵈는 예(見舅姑禮)이므로, 예식이 끝나고 바로 예식장에서 폐백의식을 행하는 것은 재고(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신랑의 폐백예복으로 적합한 것은 51.9%가 “남색관복”이라고 하였고, “신랑 취향에 맞추어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도 24.0%로 나타났다. 신부의 폐백예복으로는 “원삼과 족두리”(39.5%), “활옷, 화관”(27.1%), “신부 취향에 맞추어 선택”(2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백 시 신부 의상에 대해서는 “신부 취향에 맞추어 선택”하는 경우가 34.1%로 본래 전통의상으로 상징되는 “붉은 치마, 노랑저고리”(3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혼인을 마친 새 며느리가 입는 녹색홍상(綠衣紅裳) 즉, “붉은 치마, 연두저고리”로 알고 있는 사람도 27.9%나 되었다. 폐백음식에 대해서는 62%가 “대추폐백, 고기폐백, 닭 폐백, 구절판, 술”등 5가지 품목으로 응답하였다. 신혼여행 후에는 첫 방문지에 대해 대부분(70.5%)의 응답자가 “신부 친정”으로 가야한다고 하였다. 이는 혼례를 치른 후 일정기간 신부 집에서 머물다 본가로 가는 우귀의 풍습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한편 지속적으로 계승해야 할 혼례관습과 불필요한 혼례관습에 대해 예식업 종사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폐백”(27.1%), “전통혼례식”(23.3%)은 계승해야 할 혼례관습이라고 하였다. 불필요한 혼례관습에서는 41.9%가 “예물예단”이라고 응답하였다. 오늘날 우리사회 예단과 혼수문제는 식도 올리기 전에 혼인이 파행으로 치닫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예식업

<표 4> 혼례행례태도

(n=129)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납폐물목	혼서지와 청홍양단	5 (3.9)	폐백 시 신부의상	붉은치마, 노랑저고리	40(31.0)
	혼서지, 청홍양단, 곡식(콩, 팥 등)	27(20.9)		붉은치마, 연두저고리	36(27.9)
	혼서지, 4계절옷감, 청홍양단, 패물	62(48.1)		남색치마, 노랑저고리	2 (1.6)
	패물, 4계절옷감, 기타예물	12 (9.3)		남색치마, 연두저고리	4 (3.1)
	기타	6 (4.7)		신부 취향에 맞추어 선택	44(34.1)
예단범위	시부모에게	14(10.9)	폐백음식	대추폐백, 고기폐백	12 (9.3)
	시부모, 신랑형제	35(27.1)		대추, 고기, 닭폐백	16(12.4)
	시부모, 신랑형제, 시댁친척	40(31.0)		대추, 고기, 닭폐백, 구절판	15(11.6)
	신랑, 신부, 양가 부모	21(16.3)		대추, 고기, 닭폐백, 구절판, 술	80(62.0)
	신랑, 신부 양가부모, 신랑형제	11 (8.5)		기타	3 (2.3)
	신랑, 신부, 양가부모, 형제, 친척	2 (1.6)	신혼여행후 방문장소	신랑 본가	3 (2.3)
폐백시기 및 장소	식이 끝난 후 예식장에서	109(84.5)		신부 친정	91(70.5)
	식이 끝난 후 집에서	5 (3.9)		신랑신부가 살 집	8 (6.2)
	신혼여행 후 집에서	8 (6.2)	때에 따라 다르다	24(18.6)	
	기타	2 (1.6)	계승해야할 혼례관습	사주단지	15(11.6)
신랑의 예복	남색관복	67(51.9)		함(납폐)	8 (6.2)
	자주색관복	8 (6.2)		폐백	35(27.1)
	궁중예복	17(13.2)		이바지	3 (2.3)
	신랑 취향에 맞추어 선택	31(24.0)		전통혼례식	30(23.3)
	기타	1 (0.8)		예물과 예단	2 (1.6)
신부의 예복	원삼, 족두리	51(39.5)		없다	17(13.2)
	활옷, 화관	35(27.1)	기타	2 (1.6)	
	당의, 화관	7 (5.4)	불필요한 혼례관습	사주단지	9 (7.0)
	신부 취향에 맞추어 선택	30(23.3)		함(납폐)	4 (3.1)
	기타	3 (2.3)		폐백	3 (2.3)
				이바지	22(17.1)
		전통혼례식		11 (8.5)	
		예물과 예단		54(41.9)	
		없다	5 (3.9)		
		기타	2 (1.6)		

*빈도수 차이는 결속치를 제외함.

종사자로서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져 표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혼례행례 태도는 10가지 항목으로 살펴보았다. 예식업 종사자들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라 혼례행례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test를 해 본 결과 변인들 간의 차이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인은 주로 성장기를 겪은 고향과 종사하고 있는 웨딩산업, 현 예식업 종사자의 주 업무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고향에서는 예단범위(P<.05), 폐백시기 및 장소(P<.01), 신부예복(P<.05), 신부폐백의상(P<.05), 불필요한 혼례관습(P<.05)등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지적되었다. 즉 지역에 따른 혼례관습의 차이를 입증 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혼례 관습에 대한 연구는 차후에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영역이다. 간혹 지역차로 인해 양가 간 오해와 문제발생의 여지를 지니며 혼인 진행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지역적 풍습과 그 문화적 다양성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접근해 가면 예식을 진행하는 웨딩 매니저들의 양가 간 상담과 조율이 훨씬 부드러워질 것이다.

웨딩 홀이나 스튜디오, 드레스 샵 등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웨딩산업에 따라서는 납폐물목(P<.01), 예단범위(P<.01), 폐백시기 및 장소 (P<.01), 신부예복(P<.05)등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오늘날 한국의 혼례문화는 결혼식만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서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결혼식 전후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주, 함, 폐백 등의 전통 혼례풍습은 산업사회에 맞춰 지속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또한 웨딩관련 산업에 대한 영역구분이나 분류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산업영역을 큰 부류로 나눈다면 드레스숍, 주얼리숍, 여행사, 웨딩 홀 담당자들이 종사

<표 5>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혼례행례 태도

구분	납폐 물목	예단 범위	폐백 시기 및 장소	신랑 예복	신부 예복	신부 폐백의상	폐백 음식	신혼 여행 후	필요한 혼례관습	불필요한 혼례관습
성별	3.79	4.38	4.11	6.08	6.07	2.93	7.12	.11	6.01	5.75
연령	8.13	19.04	10.90	9.17	13.89	13.09	9.54	7.38	17.79	9.11
학력	11.05	11.21	4.46	6.96	8.24	9.84	6.28	1.04	8.48	13.35
고향	36.20	57.50*	39.19**	27.90	46.29*	48.39*	38.61	19.76	55.06	66.31*
종교	17.30	24.25	7.05	9.05	6.68	17.15	10.01	13.77	16.85	28.99
혼인여부	4.18	9.519	9.17	3.47	.75	1.36	2.11	2.99	7.98	6.44
웨딩산업	55.80**	56.49*	44.20**	29.87	49.85*	31.61	27.37	18.90	73.78	38.28
현 직급	9.10	12.13	6.50	4.86	4.50	6.46	5.57	5.00	8.12	27.13*
직무만족	15.76	12.82	9.93	9.49	27.46*	24.15	20.83	12.07	22.57	19.14

주 1) 배경변인별 혼례행례 태도에 대한 χ^2 값을 구하고, 각 셀별 교차분석표의 수가 많아 변인 별 혼례행례 태도와와의 관계를 유의 수준으로 표시하였다.

* P< .05 ** P<.01 *** P<.001

하고 있는 웨딩산업영역과 예단, 혼수, 폐백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혼례산업영역을 구분하여 볼 때 주로 웨딩산업영역 담당자들의 전통혼례에 대한 관심도나 의식 및 태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리라고 본다.

한편, 예식업 종사자의 성별, 연령, 학력, 종교, 혼인여부 등은 혼례행례 태도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혼례구조 인지수준

혼례구조 인지는 문헌의 혼례와 실제로 관행에서 이루어지는 혼례를 선례, 본례, 후례의 큰 개념적 틀에 두고, 예식업 종사자들의 이해와 인지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조사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평균이 중위점 이하(M= 2.83)로, 혼례과정에 대한 인지수준은 매우 낮았다. 즉, 예식업 종사자들의 전통혼례과정의 구조적 이해 수준은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장 인지수준이 낮게 측정된 본례(M=2.74)는 전통 혼례과정의 중심인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등 대례로서 현 결혼식 본식에 해당되는 것이다. 오늘날 결혼식은 선례와 후례에서는 사주전달과 폐백 등 전통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본례인 대례의식은 일부 전통혼례식장에서 이루어질 뿐 대부분 서양예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스튜디오, 드레스 샵이나 웨딩 홀 등에 근무하는 예식업 종사자들에게 그간 한국 혼례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습득의 기회가 전무(全無)한 현실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식업 종사자의 한국 혼례문화의 과정과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측정한 혼례구조(선례, 본례, 후례)와 관

<표 6> 혼례구조 인지수준 (n=129)

혼례구조인지	평균 (M)	표준편차(SD)
선례	2.85	.651
본례	2.74	.522
후례	2.93	.728
전체	2.83	.455

련된 배경 변인은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별(P<.05), 연령(P<.05), 고향(P<.05), 종교(P<.05), 직무만족도(P<.01)등이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지적되었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혼례구조 인지도가 높았는데, 특히 폐백 등이 포함되어 있는 후례 과정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에서는 50대 이상의 고 연령층에서 혼례구조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주단자와 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선례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50대이상의 연령층에서 높았다. 고향은 제주, 충청도 등 비교적 폐쇄적 지역 조건을 지닌 곳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종교는 천주교, 불교 집단이 개신교, 무교보다 혼례구조 인지도가 높았다.

혼례구조인지도는 한국 혼례문화에 대한 관심도와 매우 관련이 깊은 부분인데, 직무만족도와 관련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현 직장의 직무에 만족하는 집단일수록 혼례구조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는 현 웨딩관련 산업이 주로 서양예식형태로 진행되면서 시대적 트렌드와 감각을 반영하며 고심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전통혼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예식업 종사자의 학력, 혼인여부, 현 직급 등은 혼례구조인지와는 관련이 없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7>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혼례구조

구분	선례	본례	후례	전체	
성별	남	2.68	2.62	2.66	2.65
	여	2.89	2.77	3.00	2.88
	t-값	-1.563	-1.382	-2.314*	-2.444*
연령	20대	3.04	2.81	3.04	2.96
	30대	2.63	2.63	2.84	2.68
	40대	2.78	2.84	2.85	2.83
	50대	3.20	2.90	3.00	3.04
	60대이상	3.40	2.60	3.00	3.00
	F-값	3.389*	0.950	0.592	3.025*
학력	고졸이하	3.03	2.83	2.95	2.93
	전문대졸	2.85	2.74	3.03	2.85
	대졸이상	2.76	2.74	2.86	2.77
	F-값	0.927	0.176	0.692	0.803
혼인여부	기혼	2.76	2.71	2.82	2.75
	미혼	2.71	2.75	2.96	2.86
	t-값	-0.923	-0.419	-0.934	-1.130
고향	서울	2.75	2.75	2.83	2.77
	경기	2.93	2.67	3.16	2.88
	충청	3.01	2.81	3.04	2.95
	경상	2.88	2.63	2.95	2.80
	전라	2.36	2.92	2.33	2.57
	강원	2.60	2.37	2.61	2.51
	제주	3.60	3.80	4.00	3.77
	기타	3.20	2.90	3.00	3.04
	F-값	1.765	1.558	2.039	2.234*
종교	개신교	2.77	2.76	2.81	2.77
	천주교	3.14	2.65	2.89	2.90
	불교	2.89	2.93	3.06	2.94
	무교	2.76	2.68	2.86	2.75
	기타	3.34	2.73	3.67	3.26
	F-값	2.049	1.132	2.104	2.720*
직급	경영자	2.60	2.77	2.67	2.68
	관리자	2.71	2.66	2.79	2.71
	직원	2.94	2.78	3.01	2.91
	F-값	0.852	0.176	0.873	1.278
직무만족도	매우불만족	3.33	2.80	3.33	3.13
	다소불만족	2.67	2.66	3.00	2.75
	그저그렇다	2.81	2.84	2.88	2.83
	다소만족	2.95	2.82	2.99	2.91
	매우만족	2.57	2.38	2.67	2.52
	F-값	2.198	3.754**	1.166	4.202**

*P<.05 **P<.01 ***P<.001

4. 혼례의식과 혼례구조인지와의 상관관계

전통혼례의식은 한국의 혼례문화라는 포괄적인 구조의 틀에서 맞물려 운영되고 있다.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에서와 같다.

의혼은 혼례의식전체(P<.001)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었다. 즉 혼인을 의논하는 과정에서의 의식이 긍정적일수록 혼례 전 과정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위영역 중 납채는 납폐(P<.001), 친영(P.001), 의식전체(P<.001), 선례(P<.001), 후례(P<.05) 인지전체(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혼인 결정 후 사주와 택일 등 양가 간 본격적으로

<표 8> 혼례의식과 혼례구조와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 (의혼)	1	.054	-.005	-.066	.434***	-.090	-.043	-.075	-.087
2 (납채)	.054	1	.639***	.480***	.753***	.575***	.126	.332***	.495***
3 (납폐)	-.005	.639***	1	.495***	.736***	.430***	.064	.187***	.316***
4 (친영)	-.066	.480***	.495***	1	.716***	.449***	.018	.364***	.386***
5 (의식전체)	.434***	.753***	.736***	.716***	1	.471***	.060	.283***	.383***
6 (선례)	-.090	.575***	.430***	.449***	.471***	1	.297***	.389***	.841***
7 (본례)	-.043	.126	.064	.018	.060	.297**	1	.089	.646***
8 (후례)	-.075	.332***	.187*	.364***	.283**	.389***	.089	1	.640***
9 (인지전체)	-.087	.495***	.316***	.386***	.383***	.841***	.646***	.640***	1

*P<.05 **P<.01 ***P<.001

혼인준비가 시작되는 납채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납폐와 친영 등의 혼례의식전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혼례 전 과정에 대한 혼례인지 수준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의혼과 납채는 어떻게 보면 혼례과정 중 가장 중요한 초입단계라 할 수 있다. 즉 혼인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사주와 예단 등 혼수 등에 대한 준비가 시작된다. 이때 양가 간 우호적 관계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혼인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랑신부들 뿐 아니라 혼주인 양가 부모님을 상담하고 혼례를 진행시켜주는 예식업 관련 종사자와 매니저들의 의식과 태도는 이 영역에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납폐에서는 친영(P<.001), 의식전체(P<.001), 선례(P<.001), 후례(P<.05), 인지전체(P<.001)등의 변인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친영은 납채 (P<.001), 납폐(P<.001) 혼례의식전체(P<.001), 선례(P<.001), 후례(P<.001), 인지전체 (P<.001) 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납폐는 합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고, 친영은 혼인식 후 폐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혼례의식 전체와 혼례인지 전체에서 긍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은 함과 폐백이라는 혼례 절차가 현대사회 혼례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수용적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혼례의식전체는 의혼(P<.001), 납채(P<.001), 납폐(P<.001), 친영(P<.001)등의 혼례의식 전 영역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선례(P<.001), 후례(P<.01), 인지전체(P<.001)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혼례의식이 높을수록 혼례구조에 대한 인지 수준도 높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혼례문화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그 존속성의 긍정적 태도는 우리나라 혼례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 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선례는 납채(P<.001), 납폐(P<.001), 친영(P<.001), 혼례의식전체(P<.001), 본례(P<.01), 후례(P<.001), 혼례인지전체

(P<.001)등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선례는 혼례식을 치르기 전 모든 절차에 대한 구조와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선례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의식전체와 인지전체에 대한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례는 선례(P<.001), 혼례인지전체(P<.001)등이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본례는 혼인식에 해당되는 전통혼례의 전안례,교배례,합근례등의 절차가 포함되는데, 본례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 때 선례와 혼례인지전체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후례는 납채(P<.001), 납폐(P<.001), 친영(P<.001), 혼례의식전체(P<.001), 선례(P<.001), 혼례인지전체(P<.001)등이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후례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납채, 납폐, 친영 등 혼례의식이 높고, 선례 등의 혼례인지전체 대한 인지수준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혼례의식과 혼례구조에서 양가 혼인을 의논하는 의혼과 대례(大禮)의 식인 본례는 타 집단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미미한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20세기 초 서양식 결혼이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이래 웨딩드레스를 입는 결혼식과 피로연은 한국 혼례문화 속에 깊이 흡수되었으며, 한국의 혼례식이 서양예식으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전통혼례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기성세대의 의지와 신여성들의 욕구를 자극시키는 순백의 서양식 웨딩드레스, 두 가지의 문화적 코드(code)를 모두 수용해 가는 과정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관련 산업이 가세해 그 시장형성은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업계 종사자들은 시대 흐름에 따라 웨딩상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현 혼례문화의 중심에서 있다. 이들

대상 선행연구나 지표자료는 전혀 없는 상태로 한국혼례 산업의 위치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의식수준을 가늠해 보는 토대를 만든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을 몇 가지로 지적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식업 종사자들은 양가 혼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의혼에 대한 의식수준은 높았으나, 사주서식이나 전달 등 납채에 대한 의식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30-40대의 예식업 종사자가 타 집단에 비해 납채 의식이 낮았다. 예비부부들에게 있어 이 집단은 혼인식을 경험한 바로 전 세대이므로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결혼의 준비 과정을 돕는 집단이다. 오늘날 양가 혼인의사가 서로 명확해지고 약혼식 등의 공식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이 사주 전달이라는 납채 의식을 통해 표면화되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무의미해진 공합과 택일이라는 역학관계 속에서 사주의식(四柱儀式)은 매우 형식적 행위로 인식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예식업 종사자의 과반수 정도가 납폐물목으로 “혼서지, 4계절 옷감, 청홍양단, 패물”이라하였고, 예단의 범위는 시부모를 비롯하여 신랑 측 형제와 친척으로까지 인정하고 있었다. 과거 혼례관행에서는 청혼채단(치맛감)과 혼서지, 곡식 등으로 4계절 옷감과 패물 등이 납폐에 함께 포함된 것은 근대화 이후 물질 경제의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폐백음식으로는 “대추폐백, 고기폐백, 닭 폐백, 구절판, 술”등을 쓴다고 응답하였다. 전통사회 혼인관행에서 폐백(幣帛)은 본래 혼례에 소용되는 물품을 일컫는다. 신부 집에서 혼례를 마친 새 며느리가 시가(媿家)에 가서 시어른을 처음 뵈는 현구고례(見舅姑禮)가 오늘날 폐백으로 통칭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시아버지께 대추폐백, 시어머니께는 고기폐백을 일반적으로 쓰고 술과 구절판 등 음주(飲酒)를 위한 주안상은 없었다. 또한 폐백을 행할 시기로 ‘식이 끝난 후 예식장’이라 하였는데, 이 경우 오신 하객들이 예식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 동안 한쪽에서 폐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폐백이 끝나고 신혼여행지로 바로 출발하는 신랑신부들은 결국 그날 오신 하객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는 것이다. 근래 들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혼식과 피로연을 동시예식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예식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신혼여행 후에는 “신부 친정”으로 가야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혼례를 치른 후 일정기간 신부 집에서 머물다 시가(媿家)로 향하는 우귀(于歸)의 풍습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셋째, 예식업 종사자들은 지속적으로 계승해야 할 혼례

관습으로 “폐백”과 “전통혼례식”을 들었고, 불필요한 혼례관습은 “예물과 예단”으로 지적하였다. 전통혼례식은 앞으로 한국 혼례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재조명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예물과 예단은 오늘날 항시 떠오르는 사회적 문제이다. 예물, 예단은 양가 간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 예비부부들의 갈등의 골을 만들고 급기야 혼인 파기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전통혼례의 폐단이라는 인식을 확대시킨 주범이다. 사회적 문제발생의 근원이 예물, 예단 등 혼수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것에 예식산업 실무자들조차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예식산업의 방향이 매우 낙관적일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전통 혼례과정의 흐름과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마련된 예식업 종사자들의 혼례구조 인지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것은 혼례과정의 중심인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 등이 포함된 본례(本禮)이다. 오늘날 혼례과정이 선례와 후례는 사주전달과 폐백 등 전통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본례인 대례의식은 일부 전통혼례식장에서 이루어질 뿐 대부분 서양예식으로 대체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스튜디오, 드레스 숍이나 웨딩 홀 등에 근무하는 예식업 종사자들은 그간 한국 혼례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습득의 기회가 전무(全無)한 현실에서 차후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날 혼례문화는 선례, 후례는 한국 전통 풍습을 따르고, 본례는 서양식 결혼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어느 부분은 한국의 전통형식을, 또 어느 부분은 서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한국 혼례문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식산업 종사자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식업 관련 현장실무자들의 전통혼례에 대한 체계적 재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예식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교육이란 없었다. 다만 도제(徒弟)관계 속에서 얻은 기술습득과 단편적 지식과 정보만으로 예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들은 한국 혼례문화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낮았으나, 전통혼례에 대한 의식수준은 높았다. 또한 전통혼례식을 지속적으로 계승시켜야 할 혼례풍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참여의식은 매우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의 혼례문화를 산업사회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편의위주, 즉흥적 발상으로 이끌어 가기보다는 산업사회 시스템에 맞는 체계화된 전통혼례문화 교육프로그램을 학습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전통 혼례의식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바로 잡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납폐와 폐백음식 등 과거 문헌에 나타

난 혼례의식과 관행상 이루어 졌던 혼례행례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컨대 납폐(합) 물목에 있는 혼서지(납폐서)는 양가의 자녀와 혼인에 대한 중합을 일깨워주는 서식이다. 황낭에 들은 곡식은 농경사회에서 부귀다복을 상징하는 소박한 기원이 담겨있다. 청홍의 채단은 새 며느리를 맞이하는 시어른들이 주는 예단이다. 이와 같은 내용물이 오늘날 양쪽 집안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폐백은 새 며느리가 시어른께 올리는 예물이다. 폐백음식 전문점에서는 대추폐백과 고기폐백 이외에도 술, 구절판, 닭 폐백 등 불필요한 물품들을 추가하면서 단가를 증액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폐백음식 뿐 아니라 전달방법이나 폐백을 드리는 시기에 대한 현대인들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 혼례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의 혼례문화는 한국전통식과 서양식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통혼례의 현대화라고 일축하기에는 지나치게 혼란스럽다. 선례와 후례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현장실무자들의 재교육과 직, 간접의 정보전달 통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아갈 부분이다. 그러나 본례에 해당되는 지금의 결혼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통식과 서양식의 기형적 접목은 재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양가 부모들 중 아버지는 양복을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입장한다. 부부가 서로 다른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는 한국 초례청에서 볼 수 있는 청홍양초를 쓰며, 한국식도 서양의식도 아닌 촛불 점화를 한다. 이와 같은 모순을 지니고 있는 현대 혼례문화에 대해 예식업 종사자들은 깊이 새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앞으로 한국 혼례문화를 이끌며 혼례관련 산업 일선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나아 갈 예식업 종사자들의 전통혼례에 대한 의식과 행례 태도, 혼례구조의 이해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그간 일반인과 대학생들의 전통혼례에 대한 의식과 태도 등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올바른 혼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또한 그간의 왜곡된 정보들로 혼인 시 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만 확산시키고 있다. 당사자간의 혼인 무효는 일선 산업체에서는 계약 파기와 계약금 환불이라는 상황으로 이끌며, 직접적으로는 업체경영의 손실을 발생하고 간접적으로 업체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력을 준다. 특히 혼주인 기성세대들의 의식변화를 하루아침에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혼례 전 과정을 상담하고 진행시켜주는 예식업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그 역

할이 매우 중대하다고 본다. 예식업 종사자들 스스로 재교육을 통해 한국 혼례문화의 정체성을 상고하도록 하며, 혼례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양가 혼주와 예비부부들을 중재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예식업종사자, 혼례의식, 혼례행례, 혼례구조

참 고 문 헌

김도기(1981) 혼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득중(2007) 지향가정의례, 중화서원
 김인옥(2006) 한국 결혼예식 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9(1)
 _____(2007) 가정의례연구, 한국학술정보(주)
 _____, 류미현(2007) 예식서비스 정보와 예식전문가에 대한 소비자 요구, 대한가정학회지, 45(9)
 박경자, 조기홍(1997) 예론, 성신여대 출판부
 박혜인 (1981) 전통적 혼인의례에 나타난 한국가족의 성격, [여성문제연구] 10집,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이 재 (1844) [사례편람]
 이규숙(1997) 이 계동마님이 먹은 여든 살, 뿌리 깊은 나무
 이길표, 주영애(1994) 朝鮮朝 婚姻儀禮 중 見舅姑禮에 관한 研究 [生活文化研究] 제 8집,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소
 이능화(1990) 조선여속고, 동문선
 이선영(1993) 혼인행사에 관한 의식과 행동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영(1998) 전통사회 혼인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조사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이차숙(1993) 한국가정생활사, 교문사
 이해자(1995) 사주와 합의 모형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 2권
 장철수(1991) 한국 전통사회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황경애(1994) 혼인행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2000) 조선후기 서울 반가의 혼례
 한국웨딩플래너협회(2003) 웨딩플래너
 통계청자료 2003, 2005
 http://www.donga.com, 2006. 12.28일자

(2008. 9. 2 접수; 2008. 11. 28 채택)